

학업중단 청소년

The School-Dropout Adolescent

조성연(Songyon Cho)¹⁾

이미리(Meery Lee)²⁾

박은미(Eun-Mie Park)³⁾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and status, research issues, and pragmatic and policy issues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As the number of school-dropout adolescents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since 2006, more attentions have been given to these adolescents academically, intervention and policy-wise. Some of the research topics on them include types of school-dropouts, their socio-environmental factors, and reasons for the increase of school-dropouts. In reality,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o cope with their dropping out of schools by preparing the career guidance for them and to resolve the issues of their returning to or continuing in school education and their welfare.

Key Words : 학업중단(school-dropout), 청소년(adolescents), 개인적 요인(individual factor), 사회환경적 요인(socio-environmental factor), 진로지도(career guidance).

대부분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는 양질의 노동력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청소년 개인의 보다 나은 노동시장진입을 위해 갖춰야할 인적자본의 핵심요인이다(이경상 · 조혜영, 2005). 또한 개인의 교육성취수준

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평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Haveman & Wolfe, 1994; 구인회, 2003, 재인용).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국가생산력 손실, 조세수입 감소, 사회복지경비 증가,

¹⁾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²⁾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³⁾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n-Mie Park, Dept. of Social Welfare, Seoul Jangsin University, 219-1 Gyeongang-dong, Gwangju-si, Gyeonggi-do 464-742, Korea
E-mail : pemsu@hanmail.net

사회범죄 증가, 정치참여 감소와 무관심, 직업안정 파괴, 세대 간 문화단절 등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Levin, 1972; 한준상, 1997,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고 고등학교의 취학률이 99.7% 수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교육당국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중단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물들이 발표되기 시작했고,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그리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6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황을 통해 이들과 관련된 연구쟁점 및 실제적·정책적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I. 현 황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유형 및 원인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학업중단이란 어떤 이유에서든 일정한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을 중간에 그만 둔 청소년들은 중도탈락 청소년, 학교중퇴자, 학교 중도탈락자, 중퇴청소년, 등교 거부자, 탈학교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특히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학교로부터 벗어난 일탈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조성연·유진이·박은미·정철상·도미향·길은배 외, 2008, p. 228)함에 따라 2002년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업중단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였다(이병환, 2002).

학업중단은 ‘현상’을 나타내는 중립적 용어로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과 책임을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조성연 외, 2008, p. 228). 그러므로 학업중단은 어느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일련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Finn, 1989; 구본용·유제민, 2003, 재인용). 청소년들은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고민하면서 학업중단과정을 경험한다(정연순·이민경, 2008). 또한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무단결석이나 기출, 비행 등을 이유로 학교에서 처벌을 받은 후의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문선화·신심중·이춘기, 1998).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은 자발성, 원인,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한다. 즉, 자발적 의사와 강제적 의사에 따라 자퇴와 퇴학으로 구분하고,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에 따라 청소년 특성에 의한 유형, 가정요인에 의한 유형, 학교제도나 교육정책 불만과 같은 문제에 의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현재의 학교제도나 교육정책의 불만, 보다 나은 교육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학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업중단과 학교중단을 구별하기도 한다(금명자, 2008).

첫째, 자발성 여부에 따라 본인의 결정에 따른 자발적 중단(자퇴)과 외부 여건에 따른 비자발적 중단(퇴학)으로 분류한다(김혜영, 2002; 성윤숙, 2005). 김혜영(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자퇴를 한 경우의 ‘때려친 아이’와 자신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는데 퇴학을 당한 경우의 ‘찢린 아

이'로 분류하였고, 이들은 학업중단 과정과 이후 적응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학업중단 원인에 따라 학교교육을 거부하는 '적극형', 학습부진 등으로 중퇴하는 '소극형', 비행 등으로 학교로부터 중퇴당하는 '강제형', 가출로 학교까지 나오지 않게 되는 '가출동반형,'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수월추구형'으로 분류한다(박창남·도중수, 2003). 대부분의 적극형과 수월추구형의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보다 나은 학업기회를 위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중단이라기보다는 학교중단이나 학교중도탈락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셋째, 학업중단 이유에 따라 가정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출한 경우, 생계문제, 학교에 대한 불만, 교과에 대한 흥미저하, 교칙위반과 같은 문제, 건강문제, 조기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분류한다(윤여각·박창남·전병유·진미석, 2002, pp. 36-37). 이 요인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학업중단의 원인, 중퇴에 대한 자발성과 준비정도, 외부지원여부에 따른 영향, 학업중단 이후의 대처전략, 학업중단으로 인한 궁극적 결과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새로운 대안추구형', '고독한 개척자형', '탈출형', '자포자기형', '시행착오형'으로 분류한다(박현선, 2004). 이중 '새로운 대안추구형', '고독한 개척자형', '탈출형'은 학업중단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강하고, 학교제도에 대한 실망이 원인이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유형이다. 특히 '새로운 대안추구형'과 '고독한 개척자형'은 학업중단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유형으로서 적응유연성이 높다. 반면, '시행착오형'과 '자포자기형'은 학업좌절이나 환경적인 상처, 비행이 원인이며 학업중단에 대한 준비

도가 낮고, 결과에 대한 동요도 많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다섯째,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학습동기를 상실한 유형, 사이버세계로 몰입함으로써 학업중단이 이어지는 유형, 가정의 돌봄 기능이 약화된 유형으로 분류한다(정연순·이민경, 2008). 연구자들은 최근 컴퓨터와 휴대폰에 빠져 학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컴퓨터와 휴대폰이 모든 비행을 흡수해버렸다면 사이버 문제를 강조하면서 유형을 분류하였다.

3) 학업중단 원인 및 이의 시대적 변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원인은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환경요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개인, 가족, 학교요인들을 중심으로 구분용과 유제민(2003)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158개의 변인을 선별하였다. 연구자들은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개인범주(교육적 기대 수준, 우울정도, 자기존중감, 자기유능감, 10년 후 희망직업, 흡연정도, 음란물 시청정도, 임신여부), 가족범주(동거가족, 부모의 자녀교육 기대수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또래범주(교우와의 관계, 친구에 대한 교사의 평가), 학교범주(학업성적, 무단결석, 지각빈도, 재학 시 다니던 학교, 전학경험) 등 4개 범주의 20개 변인으로 재분류하였다. 20개변인 중 7개는 보호요인이고, 13개가 위협요인인데 이들이 역동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을 중단시킨다. 한편, 정규석과 Bronson(2000)은 미국자료를 분석하여 학교성적, 부모의 자녀양육방법,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결석, 사회경제적 지위, 불량한 친구와의 교제 등과 같은 변수들이 학업중단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학업중단 원인은 시대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 주원인이었으나,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 생활부적응, 학습에 대한 무관심과 무기력, 조기 유학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박내영, 2005; 박현선, 2004; 표갑수, 1993). 1964년에 국민학교(현재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거나 중퇴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무영·유혜영·한성애·이홍자·조영연, 1964)에서 학비나 학용품 마련 등과 같은 경제적 이유가 5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가사나 돈벌이는 각각 4.35%와 7%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이나 성적은 5.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황창순, 1996)에 의하면, 중퇴사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가정 사정으로 인한 중퇴비율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출 등을 포함하는 기타사유의 비율이 급증하였다. 또한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학업중단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한 박내영(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적 사정에 의한 중퇴가 73%인 반면, 가정불화나 성적부진 등의 이유는 8%에 불과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퇴가 감소하고, 가족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향락문화에 따른 자발적이며 '비전통적인' 중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이후부터 조기유학이나 비교내신제 폐지에 따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퇴 등 공교육의 문제에 따른 중퇴, 북한이탈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따른 중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학업중단 양상을 나타냈다.

교육통계(2009c)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6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교부적응과 품행으로 인한 학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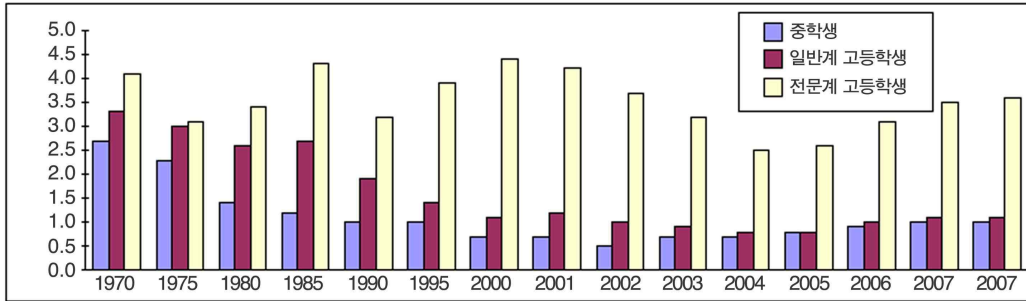
단 청소년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현대에 접어들수록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가정요인보다는 학교요인이나 사회환경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및 문제점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우리나라와 같이 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학업중단은 청소년에게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진학률을 나타낸다. 2008년 현재 중학교 진학률은 99.9%,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83.8%나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는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6년 이후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2002년부터 교육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연구(김동민·금명자·권혜수·이소영·이희우·이광호, 2003; 윤여각 외, 2002)를 추진하였고, 연구자들(고기홍, 2003; 구분용·유재민, 2003; 이경상, 2003; 이병환, 2002; 조아미, 2002; 추병식, 2003)도 학업중단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논문들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의 대책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망된다.

감소하였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시의 내신반영비율 확대에 따른 입시정책의 변화로 인한 학업중단, 대안학교로의 진학 등을 들 수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약 3배 이상 더 높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의 원인은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다수의 학생



<그림 1> 연도별 학업중단률(단위 : %)

- 주. 1) 학업중단률=(학업중단자 수 / 재적 학생수) × 100
- 2) 학업중단자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적·중퇴 및 휴학자임.
- 3)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봄.
- 4) 자료의 제한으로 1990년까지는 학업중단자에 사망자, 유학/이민자가 포함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사망자, 유학/이민자가 제외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과학기술부(2009). 교육통계.

들이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낮은 학업성취로 인해 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교육통계(2009c)에 의하면 2008년 중학생의 1.0%, 고등학생의 1.7%가 학업을 중단하였다. 즉, 2008년 학업을 중단한 중학생은 20,101명이 고, 고등학생은 32,943명으로 총53,044명이나 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1990년도부터 약 2~3%로 추산하면 대략 해마다 5만 명에서 7만 명의 청소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점

금명자(2008)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 이후의 과정은 학업회복에 대한 노력과 학업포기로 나뉘고, 학업포기는 사회적 조기진출과 비행화 등으로 다시 나뉜다. 그리하여 금명자는 체계적 지지나 지원이 없으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1년

이내에 비행과 같은 부적응 현상을 보임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수의 연구결과들에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노동력 착취, 저임금의 심야노동, 비정규직을 특징으로 하는 열악한 일자리 문제를 경험하며(문선화 외, 1998; 박래영, 2005; 전경숙, 2006),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비행에 빠져들 우려가 높은 것(문선화 외, 1998; 윤여각 외, 2002)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학업중단과 가출, 비행의 연관성이 증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 바, 학업중단이 더욱 심각한 청소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황창순, 1998).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다시 학업을 계속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래를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 기관의 필요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이경상·조혜영, 2005), 별다른 대안 없이 지내다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박래영, 2005).

II. 연구쟁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학업중단이나 중퇴 등을 주제로 국내학술지를 검색한 결과, 고등학생 이하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즉, 1960년대는 초등학교를 취학하지 못했거나 중퇴한 아동에 대한 이무영 외(1964)의 연구가 있었고, 1970년대에는 중학교 중퇴원인과 예방에 관한 이재우(1973)의 연구, 1980년대는 장석민(1988)의 실태조사연구만을 찾을 수 있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소수의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대부분 실태파악과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송광성·구정화, 1993; 이숙영·남상인·이재규, 1997; 표갑수, 1993; 황창순, 1996)들이었다. 그 외의 연구주제로는 중퇴생 부모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홍봉선·남미애, 1998), 중퇴 전후의 비행을 비교한 연구(김경식, 1998), 복교를 원하는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박수민, 1998), 정신의학영역에서 입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길홍·박두병·신용규, 1994)가 보고되었을 뿐이다. 이로써 1990년대 이전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소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실태 및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고, 양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들이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2000년 이후에야 비로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연구주제도 단순한 실태조사의 차원을 넘어 학업중단의 다양한 유형을 분류하거나 학업중단이나 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사회화경적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

다(구본용·유제민, 2003; 금명자, 2008; 김지혜·안치민, 2006; 김혜영, 2002; 박내영, 2005; 박현선, 2004; 성윤숙, 2005; 윤여각 외, 2002; 정규석·Bronson, 2000; 정연순·이민경, 2008). 그 외에도 실태 및 현황 파악(박내영, 2005), 개입 프로그램이나 개입 방안 및 대책(고기홍, 2003; 금명자 외, 2004; 김동민 외, 2003; 김광운, 2004; 노상우, 2004; 우영숙, 2004;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이후의 아르바이트나 근로 실태(이경상, 2006; 전경숙, 2006; 전경숙·노재봉, 2003), 학업중단 예방방안(이병환, 2007) 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질적 연구들(박현선, 2004; 정연순·이민경, 2008)도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중단 현상을 이해하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적응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적응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원인 파악 및 대책 등에 대한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에 대한 개인적, 사회화경적 원인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1. 유형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맥락적 이해

김혜영(2002)의 분류에 의하면 ‘때려친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학교공부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이고, ‘찢린 아이’는 장기무단결석이나 비행 등의 문제를 유발하여 자퇴처리가 되었지만 본인은 계속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은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상이한 차이가 있다. 즉, ‘찢린 아이’는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학교를

원망하고 복학 욕구는 있으나, 자기통제력의 부족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하며, 도둑질 등의 비행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급친구나 교사와 거의 상호작용이 없고, 어려서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는 방임적 양육태도를 보이고,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도 낮다. 반면, '때려친 아이'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서 학교를 자퇴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의지부족으로 계획적인 행동통제는 못한다. 그리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자퇴를 만류하지만 학생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결국에는 뜻대로 하도록 격려하며, 부모는 아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행동통제나 권력사용이 적은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 이렇듯 자발적인 의지와 같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나 교사의 관심 및 태도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박현선(2004)도 학업중단의 원인, 외부적 지원 여부, 학업중단 이후의 대처전략, 학업중단으로 인한 결과 등에서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즉, 진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며, 자기관리에 신경 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학업중단 상황에서도 뛰어난 적응 양상을 보이지만, 가정 환경이 좋지 않고,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의미하게 소일하거나, 다양한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적절한 대처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중단 상황에서 특정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비행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의 원인, 외부적 지원 여부, 학업중단 이후의 대처전략 및 학업중단으로 인한 결과 등의 맥락적 요인들은 학업중단 청소년

의 유형별 특성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더욱이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도 성공적인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청소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만둔 후의 적응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유형별 이해에 따른 맥락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개인적·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효과연구

학업중단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업중단 결정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학업중단과정이나 학업중단 이후의 적응과정에 차이가 나타나므로 학업중단의 원인과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데 유형별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기존연구들에서는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여부나 학업중단에 미치는 이들 요인의 직·간접적 효과들을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학업중단의 유형에 따른 개인적·사회환경적 관련 요인의 내용이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모색하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결과들에서 밝힌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성취동기, 공격성, 우울, 나태한 생활습관, 무기력,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건강악화를 포함하는 심리적 요인과 부정적 학교교육관과 배금주의적 가치관 요인 및 비행, 가출, 흡연, 음란물 시청, 임신 등의 행동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환경적 요인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대별된다.

구조적 측면은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결손을 들 수 있고, 기능적 측면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나 통제적 양육방식, 부모-자녀 간 갈등, 가정의 경제적 빈곤과 같은 가정적 요인, 학교에 대한 불만, 학과공부의 어려움이나 필요성 결여 및 흥미상실, 낮은 학업성적, 교칙 위반, 무단결석, 잦은 지각, 전학경험,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같은 학교요인, 부정적인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나 비행친구들과의 접촉 등의 친구요인을 들 수 있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인적, 사회환경적 요인의 효과는 학교급별과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전문계 고등학생별로 학업중단의 원인을 조사한 연구(금명자·권해수·이자영·이수림·김상수, 2004)에 의하면 각 학교별로 학업중단의 이유가 달랐다. 중학생과 전문계 고등학생은 교과에 대한 흥미상실이,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교에 대한 불만이 학업중단의 주요인이었다. 구분용 외(2002)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중퇴 유무와 가장 의미 있게 관련된 요인은 부모의 교육적 기대 수준, 함께 어울리는 또래에 대한 교사의 평가, 결석이나 지각의 수업결손 등으로 주로 학업수행에서 파생되는 요인들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흡연, 무기력, 우울, 미래 진로에 대한 기대,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은 성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내 남학생은 학력에 대한 좌절이, 여학생은 부모-자녀관계와 학년의 변화와 같은 과도기의 부적응이 학업중단을 설명하는 주요인이었다.

학교급과 성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설명함에 있어서 학교급별이나 성별 등의 하위집단별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업중단의 유

형에 따라서도 하위요인별 심층적인 분석과 학업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을 다차원적이며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원인 파악 및 중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원인에 대한 이해

현대로 접어들수록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품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교육통계(2009c) 결과는 청소년이 어떤 이유로 학교생활에의 적응이 문제가 되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인 자료의 수집을 통해 현황파악이나 단순한 요인분석 및 관계 파악 등에 관심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바,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질적인 수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 원인을 현장연구나 포커스그룹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품행에 비해서는 증가율이 높지 않지만 질병이나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의 증가와 같은 맥락에서 원인을 규명해보는 연구와 IMF나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적 어려움이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인터넷중독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부적응의 우려가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도 점차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전 선별검사를 통한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연구도 실시 될 필요가 있다. 지승희 외(2006)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위 3%에 속하는 경우를 위기 1수준, 상위 10% 이내로서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위기 2수준, 상위 21%로서 잠재적 가능성을 띤 위기 3수준과 그 외를 위기 4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재학 청소년은 위기 1수준이 3.8%, 위기 2수준은 6.9%로 위기 2수준 이상이 10.7%로 위기군에 속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은 위기 1수준이 8.2%, 위기 2수준이 8.9%로서 17.2%가 위기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신건강 상의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15~24세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드러나(중앙일보, 2007. 4. 7)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학업중단을 할 우려가 높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시계열 분석이나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 과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전경숙(2005)은 선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지원 정책을 고찰하면서 이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수립 및 추진,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청소년 고용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장기적인 안목으로의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학업중단의 원인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학업중단의 원인에 따른 유형별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개별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교육정책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2009e)는 2009년 2월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함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보호·지원을 위한 학생안전 통합시스템(Wee(we+emotion) project)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개별학생의 부적응상태와 정도에 따라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단위학교,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2012년까지 전국의 모든 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에 대한 대처

학업중단 청소년은 200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현상(<그림 1> 참조)을 보이고 있는데 이의 원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2009b)는 입시정책의 변화로 인한 학업중단, 대안학교로의 진학, 낮은 학업성취로 인한 중도 탈락 등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최근의 학업중단은 대입에서의 유리한 내신을 위한 검정고시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의 자퇴, 조기유학 등의 보다 나은 교육기회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무조건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기보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와 학교환경의 개선 및 대입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률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므로 이를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차원의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각종 상담기구를 통해 긴급 상담 지원서비스와 진로지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전국의 초·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와 진로지도교사의 의무배치를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가능한 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대학을 졸업해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계몽활동의 필요성과 함께 전문 기술을 가진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졸자 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취업 및 진로지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학업을 다시 지속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혹은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와 관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은 무엇이며 어떠한 삶을 원하는 지에 관한 탐색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 및 진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특히, 취업을 원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직업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이후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

는 기관이 필요한데 현재의 Wee project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주·야간에 기술을 가르치거나 직업훈련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과 청소년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라도 부담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인턴제도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비록 학업을 이수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장에게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입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학교급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하다.

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지속 문제 해결

학업을 중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복교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를 떠난 원인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교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로의 진학이나 검정고시를 통한 고졸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하다. 특히 대부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연한 교육과정의 특별학급 운영 및 각종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등에서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학업성취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

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종합지원 체계 구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취업하여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데 비정규직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의 이동이 잦고 불건전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므로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불법고용의 규제 노력과 건전한 노동환경의 마련 및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종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에서는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과 연계하여 교육복지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학교를 중단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 정서, 진로와 휴식을 위한 심리적·물리적 공간의 제공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등이 증가하면서 언어발달지체 및 문화부적응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은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의 정서장애를 나타내기도 하여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6)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의 학업중단은 사회적 부적응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1)

의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로 나타나 당시 일반 중학교의 중퇴율인 0.7%와 비교하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안은미, 2007).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이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기홍(2003). 학업중단청소년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학생생활연구*, 24(1), 117-136.
- 교육과학기술부(2009a). 2008년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b). 2008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c). 교육통계서비스.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09d). 교육통계연보. www.mest.go.kr/ms_kor/inform 2009. 8. 17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2009e).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폭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www.mest.go.kr/ms_kor/news에서 2009. 8. 16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2009. 2. 13). Wee center, 신빈곤층 위기학생 보호·지원서비스 본격 가동.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구분영·신현숙·유제민(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구분용·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1), 133-146.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자경(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4(1), 299-317.
- 금명자 · 권혜수 · 이자영 · 이수림 · 김상수(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9.
- 김광운(200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의 활동방향.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29, 61-76.
- 김경식(1997). 중·고교 중퇴생과 재학생의 교내외 생활 비교를 통한 중퇴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7(3), 115-138.
- 김경식(1998). 중·고교 중퇴 청소년의 중퇴 이전과 이후의 비행 비교. *중등교육연구*, 41, 1-18.
- 김동민 · 금명자 · 권혜수 · 이소영 · 이희우 · 이광호(200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성이 · 조학래 · 노충래(2004). *청소년복지학*. 서울 : 집문당.
- 김순규(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논집*, 28, 21-39.
- 김지혜 · 안치민(2007).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노상우(200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전략. *교육의 이론과 실천*, 9(2), 45-64.
- 문선화 · 신심중 · 이춘기(1998). 중등학교 중퇴자의 학교복귀를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접근방안.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 8(1), 185-207.
- 박수민(1998). 복교를 원하는 중퇴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4(1), 25-46.
- 박창남 · 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박현선(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서울 :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송광성 · 구정화(1993). 정학 · 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 80-100.
- 안은미(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현의 · 이소영 · 권혜수(2002).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19-31.
- 우영숙(2004). 보호처분을 받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소고. *사회복지실천*, 4, 21-42.
- 윤여각 · 박창남 · 전병유 ·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상(2003). 국가발전과 청소년대안교육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실태 및 지원 방안. *한국청소년학회 2003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93-109.
- 이경상(200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연구*, 17(2), 165-289.
- 이경상 ·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19-38.
- 이길홍 · 박두병 · 신용규(1994). 입원한 학업중단 청소년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33(6), 1295-1305.
- 이무영 · 유혜영 · 한성에 · 이홍자 · 조영연(1964). 불취학 및 중퇴아동의 실태조사. *교육연구*, 25, 173-187.
- 이병환(2002). 학업중단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병환(2007). 대안교육을 통한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방안. *중등교육연구*, 55(1), 69-89.
- 이숙영 · 남상인 ·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 청소년상담 연구원.
- 이재우(1973). 중학교 중퇴원인과 예방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11(1), 52-78.
- 장석민(1988). 중퇴 및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전경숙(2005). 외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정책. *직업과 인력개발*, 가을호, 112-123.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경숙 · 노재봉(200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규석 · Bronson, E. D. (2000). 미국의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한국아동복지학*, 9, 205-225.
- 정연순 · 이민경(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 조성연 · 유진이 · 박은미 · 정철상 · 도미향 · 길은배 외(2008). *청소년복지론*. 서울 : 창지사.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중앙일보(2007. 4. 7). 15~24세 사망원인 1위는 '자살'. [http : //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87136](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687136)에서 2009년 12월 23일 인출.
- 지승희 · 양미진 · 이자영 · 김태성(200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 추병식(2003). 학교붕괴의 탈근대적 의미. *청소년학연구*, 10(3), 49-64.
-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 중퇴자와 재학자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1), 127-147.
- 한국교육개발원(2008). 학업중단 관련 통계. *교육정책포럼*, 183, 22-23.
- 한준상(1997). 중퇴생의 진로선도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진로교육연구*, 7, 115-134.
- 홍봉선 · 남미애(1998). 복교를 원하는 부산지역 중퇴 청소년 부모의 욕구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1), 141-179.
- 황창순(1996). 청소년 학업중퇴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대책. *순천향사회과학연구*, 2(1), 109-133.

2009년 8월 22일 투고, 2009년 10월 20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